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또 다른 '김창열미술관' 건립 논란

같은 이름 미술관 제주도는 무대책

종로구립미술관 업무 협약 자택 매입 후 작품 전시 계획
제주에도 4년 전 공립미술관 정체성 찾기 새로운 과제로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내 한 해 3만3000명가량(작년 기준)이 찾는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김창열 작가의 작품 세계 등을 담아낼 또 다른 공립 미술관이 서울에 조성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이같은 사실을 언론 보도로 접한 것으로 나타나 미술관 정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기증 작품 수 최소 60점 될 듯=종로구청은 지난 9월 23일 보도자료에서 종로구의 원로회장과 소장자 3인과 맺는 '구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소식을 전하며 협약 대상자 중 한 명이 "물방울 그림으로 유명한 김창열 화백"이라고 밝혔다. 업무 협약은 국내외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지역 원로 미술가들의 자택을 미술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창작품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시대별, 주제별로 구성하고 테마 전시를 열어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종로구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업무협약 단계에서 작품 기증 수가 100점 이상이 될지, 60점 이하가 될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서울 종로구가 김창열 작가의 자택을 매입해 또 다른 김창열미술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종로구에서 내년 자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친 뒤 내후년 개관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증 작품 수에 따라 1층이나 2층 미술관으로 등록되는 거여서 김창열 작가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또 하나 생겨나는 셈이다.

▶인지도 높이는 노력 얼마나=도립 김창열미술관은 전체면적 1587㎡ 규모로 92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김 작가는 한국전쟁 당시 제주에 1년여 머물렀던 인연으로 제주에 대표작 220점을 기증했다. 현재 미술관 소장품은 233점에 이른다.

개관 5년도 안돼 서울에 새로운 김창열미술관 조성 계획이 나왔지만 직접 미술관 운영을 맡고 있는 제주도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

다. 지난 6일 서울 김 작가의 자택에서 가족들과 만났다는 제주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보도에 나온 것처럼 미술관이 아니라 작품 제작 화구나 평소 사용해온 생활 용품 등을 전시하는 기념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면서 "서울에 기념관이 있으면 제주의 미술관도 알리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미술계의 반응은 다르다. 제주 미술계 관계자는 "100억 가까이 들어 지은 미술관인데 지난 4년여 표작 220점을 기증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차별화 방안이든, 협업이든 도립 김창열미술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홍기표 박사와 함께하는 한리일보 인문역사 강의

형세의 역전 광해군, 인격의 완성 추사

(11) 제주의 유배문화(하)
폐모살제에 격렬한 항소 정은·이익 유배 뒤 복귀 광해군은 제주에서 병사 추사는 유배로 일법 이뤄 유배인 전체적 파악 시급

▶상처 3(형세의 역전)=정변이 일어나거나 정적들이 제거되면 유배인들은 다시 해배되고 중앙정부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제법 많았다. 따라서 제주에 있는 동안 이들은 절치부심하며 지내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학문 탐구의 심화와 제주민에 대한 교화 등으로 소일하며 미래를 준비하기도 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의 연출은 광해군과 유배인에 얽힌 사실이다.

1602년 인목왕후가 선조의 계비로 들어와 1606년 영창대군을 낳았고, 뒤이어 1607년 선조가 갑자기 죽자 세자인 광해군이 즉위하였다. 그 후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은 왕권에 위협적인 세력으로 비쳐졌다.

결국 1613년(광해군 5) 서양갑 등 7명의 서열들이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역모를 꾸민다는 이른바 '7서의 옥'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인목대비의 부친 김제남은 사사되었고, 영창대군은 서인으로 강등되어 강화도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봄 강화부사 정항은 적소를 불태워 영창대군을 죽였으며, 광해군 지지 세력들은 인목대비까지 폐비시켰다. 이상의 사실로 광해군은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아우를 죽였다는 이른바 '폐모살제(廢母殺弟)'의 악명을 지니게 됐다.

바로 이 때문에 1623년 유교 윤리를 훼손시킨 군주를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재야의 서인세력들이 인조반정을 일으켰다. 왕위에서 쫓겨난 광해군은 처음에는 강화도에 유배되었으며, 이후 15년간 몇 차례 적소를 옮겨 다니다가 마침내 1637년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그는 당시 이시방 제주목사의 도움

으로 3년간 지내다가 1641년 67세로 제주에서 병사하였다. 당시 제주목사로 도임한 이시방은 인조반정의 공신이었기 때문에 광해군을 모질게 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시방 목사는 광해군을 학대하려는 극진히 대우하였고, 그가 죽은 뒤에는 정성을 다하여 호상하고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광해군이 죽자 인조는 3일간 조정을 정지시키고, 소산으로 조의를 표했다. 예조참의 채유후를 보내 호상을 맡게 하였으며, 그의 시신을 모셔와 경기도 양주에 묻었다.

앞서 광해군은 폐모살제에 격렬한 상소를 올리며 저항하는 동계 정은, 간옹 이익 등을 제주에 유배시켰다. 뿐만 아니라 인목대비의 모친이자 김제남의 부인인 노씨부인까지 제주에 유배 보냈다. 이들은 최소 5년에서 10년간 제주에서 기약 없는 시련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자 하루아침에 유배에서 풀려 중앙 무대로 복귀한다.

▶상처 4(인격의 완성)=추사 김정희(1786-1856)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추사는 조선 후기 문신·서화가·금석학자로 북학파의 일인자 인 박제가에게 사사했다. 연암 박지원의 손자로 추사와 동시대를 살았던 박규수는 추사체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추사 글씨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그 서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어렸을 적에는 오직 동기창에 뜻을 두었고, 연경을 다녀온 후에 웅방강을 따르며 노닐면서 열심히 그의 글씨를 본받았다. (그래서) 이 무렵 추사의 글씨는) 너무 기름지고 획이 두껍고 끝기가 적었다는 흠이 있었다. 그 후에는 소동파와 미불을 따르고 이용으로 변하면서 더욱 굳세고 신선해지더니 드디어는 구양순의 신수를 얻게 되었다. 만년에 (제주 유배로) 바다를 건너 갔다 온 다음부터는 구속 받고 분드는 경향이 다시는 없게 되고, 여러 대가의 장점을 모아서 스스로 일법(一法)을 이루게 되니, 신이 오는 듯 기가 오는 듯, 바다의 조수가 밀려오는 듯하였다."



이형상 제주목사의 '남편박물관' 기록으로 볼 때 광해군 적소 터로 추정되는 제주시 성내교회.

▶유배 연구의 과제=유배 인원 수, 유배 장소, 유배 원인, 유배 영향에 초점을 맞추며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연구 대상으로 삼는 유배인에 대한 전체적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료에 전하는 제주 유배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필자도 작년 국립제주박물관 유배 주제 특별전 도록의 유배인 300명보다도 약 40명의 유배인을 더 파악해 현재 336명의 제주 유배인 목록을 작성해 연구하고 있다. 향후 개인문집과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관찬 사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유배인들의 신분, 유배 시기, 유배 원인, 유배 장소, 유배인 전체 인원수 파악 등 기초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 후 비로소 제주 유배인과 그들에 의한 제주 문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뒤를 이을 수 있다. 주요 유배인들에 대한 학문적 교화만을 강조해 제주 문화의 발전에 유배인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일견 타당하지만 완전치 못한 해석일 수 있다. 제주 유배사 연구를 위해 학계와 여러 연구 기관들이 연계된 일종의 추진체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강의 영상은 한리일보 유튜브 채널(촬영·편집 박세인 기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가 쫓지

김상은의 '결, 바다의 시간'

김상은 개인전 '결, 바다의 시간'이 이달 19일까지 제주시 아라동 심헌 갤러리에서 열린다.

김 작가에게 제주 바다는 이 땅의 역사와 문화를 일컫는 힘의 근원이다. 그는 섬유를 이용해 제주 사람들과 결을 같이해온 바다가 품은 빛과 색,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 그림자를 표현했다. 특히 심미성과 실용성을 갖춘 조형 작품에선 우리 사는 세상이 밝은 빛으로 물들길 소망하는 작가의 바람이 읽힌다.

김영란 개인전 '제주 바람'

김영란 작가가 '제주 바람(Wind of Jeju Island)'이라는 제목으로 이달 19일까지 제주도문화회관 3전시실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유화, 수채화 등으로 그려낸 '제주 바람' 연작을 선보이고 있다. 단국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늘 경쾌할 것만 같았던 제주바람의 매서움과 흑독함을 접한 이후로 내 작업에 제주바람이 들어왔다"고 했다.

김성란 작가 지도 청야회전

서양화가 김성란씨가 지도를 맡고 있는 청야회가 이달 21-26일 이충섬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세 번째 회원전을 연다.

청야회는 서귀포시 기암미술관과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통해 꾸려졌다. 올해로 4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로 이번 전시에는 김성란 작가를 포함 28명이 30여 점을 선보인다. 코로나19에 더 소중하게 다가온 제주의 풍경과 눈부신 햇살이 화폭에 담겼다.

축
CONGRATULATIONS
受賞
풀잎文學賞



姜 研 益
姜研益詩人님께서
제17회 풀잎文學賞 大賞 受賞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며 앞으로 健筆과
더 큰 榮光이 함께 하시길 祈願합니다.

사촌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상
국무총리표창



이 동 은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한국새농민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송용진 외 회원일동
제주시회 회장 정재훈 외 회원일동
서귀포시회 회장 김중우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김 영 훈
(주식회사 일해 대표이사)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식회사 일해
임직원 일동

축
CONGRATULATIONS
선임
대한노인회 부회장



강 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사)대한노인회 부회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와
새로운 노인문화 창달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월읍 고성2리 노인회
회장 이진화 외 회원일동